

소득 주도 성장(토론)

2017년 9월 27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대일

1. 이슈

소득(임금) 주도 성장(Income-led Growth) : ILO 등

임금 인상 → 근로자 소득 증가 → 소비지출 증가
→ 기업 매출(이윤) 증가 → 고용증가

cf. Keynesian Income Policy, 장기 성장 vs 단기부양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최저) 임금 인상이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가?
소비를 증가시키는가?
고용이 증대되는가?

2.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

Card and Krueger(1994) vs Neumark and Wascher(2000)

Boockmann(2010)은 199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의 15개국에서 발표된 최저임금 고용효과 관련 논문을 정리
➔ 대체로 고용이 감소한다는 효과가 지배적

	논문 수	퍼센트
유의하게 음의 효과	96	31.6%
유의하지 않게 음의 효과	107	35.2%
유의하지 않게 양의 효과	78	25.7%
유의하게 양의 효과	23	7.6%

(자료 : Boockmann, 2010)

2.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

국내 연구도 대부분 고용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 일부 예외

저자	분석 방법	데이터	대상	고용탄력성
이병희(2008)	이중차분법	경제활동인구조사, 2004-2005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효과 없음
남성일(2008)	패널데이터	수도권 아파트 설문조사 2007	감시단속 근로자	-0.312
김대일(2012)	패널데이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8-2010	신규채용 근로자	남성 청년, -3.7
김민성 외(2013)	패널데이터	한국노동패널, 2000-2008	전체 근로자	24세 이하 고졸, -0.37
김영민(2015)	패널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2001-2014	전체 근로자	서비스업: -0.37
이정민·황승진 (2016)	패널데이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6-2014	전체 근로자	-0.14
김유선(2014)	최저임금지수	시도별 자료, 2000-2013	전체 근로자	효과 없음
박철성·강승복 (2015)	시계열	경제활동인구조사, 2001-2013	전체 근로자	-0.04~-0.09

2.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

(최저) 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키면 근로자 소득은 별로 늘지 않거나 감소할 수도 있음

반면 (최저) 임금 인상은 확실하게 기업의 이윤을 감소시킴

➔ 결과적으로 전체 소득(근로+자본 소득)에 대한 효과 불확실

➔ 소비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될 수도 있음

기업 법인세 더 걷고, 최저임금 인상 폭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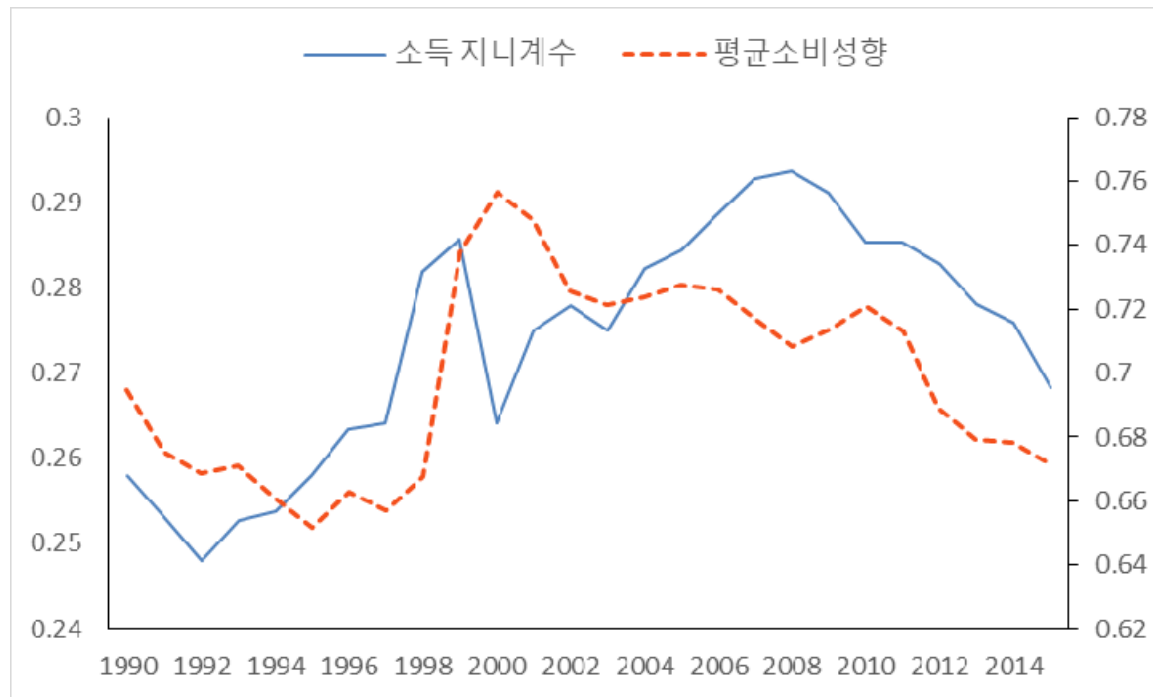
➔ 법인세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일 가능성 높음

➔ 그렇다면 대기업 일자리 없애고, 최저임금 일자리 만드는 효과

3. 소득 불평등도와 평균 소비성향

한계소비성향 차이로 인한 소비/성장 유발 효과가 가능?

➔ 실증 분석에 의하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상관계수 = .573)



자료 : 통계청 가구동향조사 (2인 이상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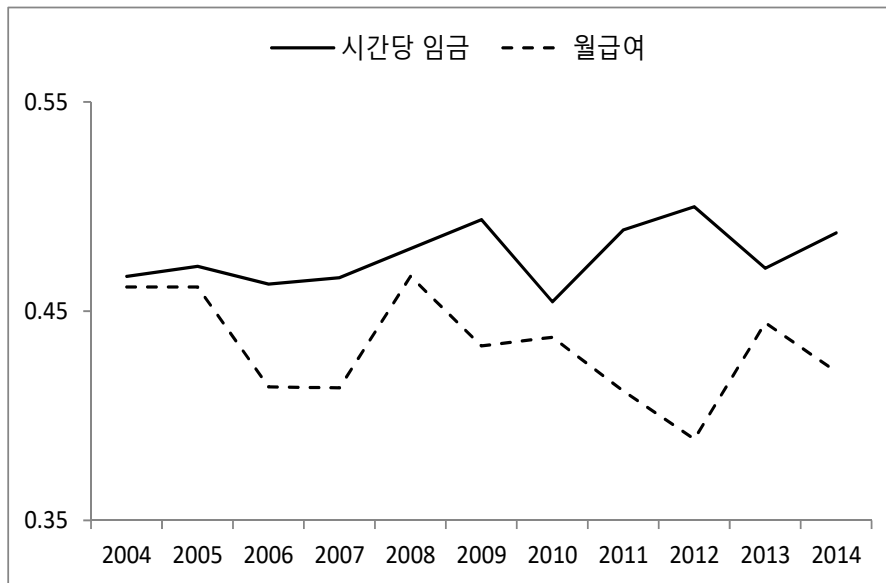
4. (최저) 임금의 불평등 개선 효과

소득불평등 완화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중 하나로 자주 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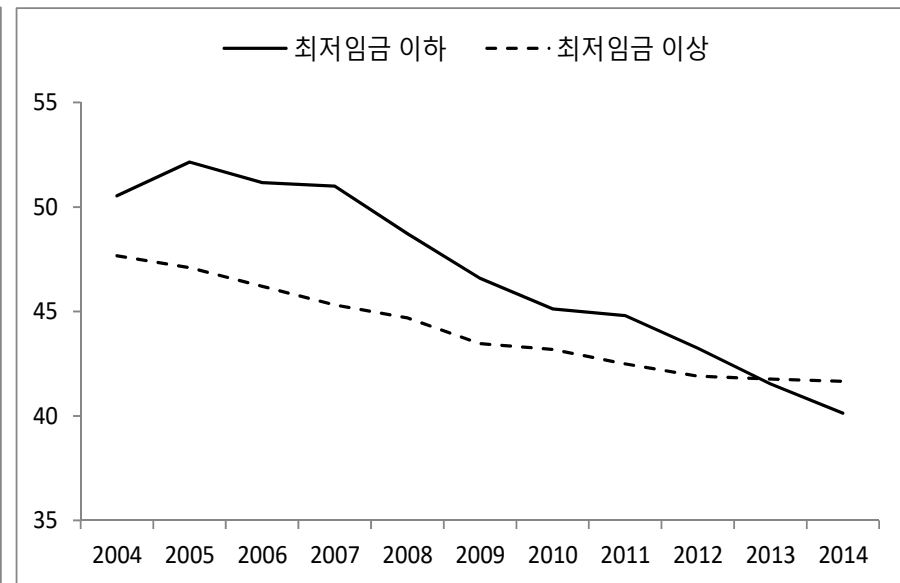
그러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

➔ 임금 분포의 불평등이 개선되는지도 불확실(고용 감소)

[임금 10/50분위 비율]



[근로시간 추이 비교]



5. 근로자 보호의 이슈

소득주도성장, 양대 지침(공정인사, 취업규칙) 폐기

➔ 취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의미

“근로자는 제도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 보호된다”

(Milton Friedman in *Capitalism and Freedom*)

➔ 해고가 제한되어도 구조조정은 기업퇴출 방식으로 진행

➔ 시장 지배력이 없는 중소 영세기업이 시장에서 제일 먼저 퇴출되기 때문에 고용 경직성으로 인한 피해는 중소 영세기업에 집중될 우려

➔ 또한 고용 경직성은 오히려 전체 고용을 위축(S. Nickell, E. Lazear)

5. 근로자 보호의 이슈

그러면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 “시장에서의 보호”란 곧 생산성의 이슈

1) 생산성 증가 : 교육, 훈련, 투자 및 R&D

➔ 장기 성장 동력 확충

2) ALMP : 재취업 훈련, 고용안정망, EITC(근로장려세제)

➔ 취약계층 근로자의 시장 소득력 보완

3) 사회 안전망 : 고용 보험, 공공근로

➔ 취약계층 근로자의 소득 지원